

영화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서 첫 공개...8분간 기립박수

봉준호 감독 "새 작품, 칸서 처음 선보일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영광"

2300여석 좌석 일찌감치 매진...BBC, 반드시 봐야할 10대 영화 꼽아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50) 감독과 배우들이 22일 오전(한국시간) 새벽 필레 드 페스티발에서 펼쳐진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봉 감독과 함께 송강호(52), 이선균(44), 조여정(38), 최우식(29), 박소담(28), 장혜진(44)이 자리를 빛냈다.

국내의 기자 수백여 명이 모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봉 감독은 "감독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칸 영화제에서 가장 처음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흥분되는 일이다. 지금도 좀 흥분이 된다"고 박차했다.

"그동안 내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본 분들이라도 이번 영화를 보면 또 놀랄 것이다. '기생충'은 되게 이상하다"라고 덧붙여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할리우드 스타 릴다 스윈턴(59)이 깜짝 등장했다. 봉준호 감독과 포옹했다. 스윈턴은 봉

감독의 전작 '실국열차' '옥자' 등에 연이어 출연했다. 특히 '옥자'가 2년 전 '제70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 스윈턴과 봉 감독이 함께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다. 또 '기생충'에 투자인 CJ그룹의 이미경(61) 부회장도 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카펫 행사 뒤에는 뤼미에르 극장에서 '기생충'의 공식 프리미어(첫 상연)가 이어졌다. 상영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2300여석의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상영 약 2시간 전부터 극장 앞에서 '기생충'을 보기 위한 관객과 취재진, 영화 관계자를 그리고 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31분간의 상영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객석은 뜨거운 함성과 함께 약 8분간의 기립박수를 보였다. 르몽드 등 전 세계 150여 개 언론 매체에서 봉 감독과의 인터뷰

뷰 요청이 쏟아졌다. BBC는 '기생충'을 칸 영화제에서 반드시 봐야 할 10대 영화로 꼽았다.

앞서 봉 감독은 스포일러 방지를 부탁하며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금지를 청했다. 봉 감독은 부타드립 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한 기사를 쓰실 때, 그간 예고편 등을 통해 노출된 두 남매의 과외 알바 진입 이후의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최대한 감춰주신다면 저희 제작진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생충'은 식구들 모두가 백수인 기택(송강호)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선생 면접을 위해 박 사장(이선균)의 집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배경이 전혀 다른 두 가족의 만남은 결집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간다. 30일 개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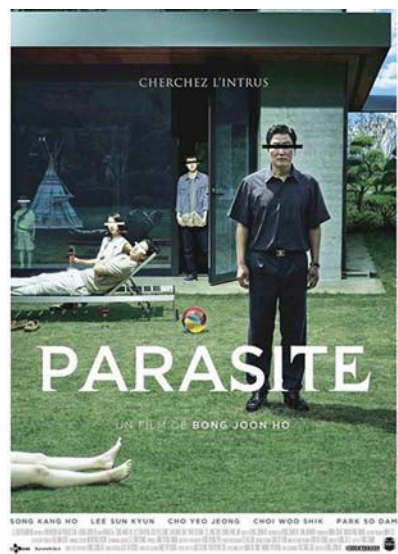
뉴시스



배우 최우식, 봉준호 감독, 배우 박소담, 이정은, 조여정, 이선균, 장혜진, 송강호(왼쪽부터)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의 필레 드 페스티발에서 열리고 있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기생충' 기자회견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준호 '기생충' 황금종려상 확률, 베틱업체에서는 3위



칸 국제영화제의 폐막이 이를 앞두고 다가왔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올해 한국에서 유일한 경쟁 부문 진출작으로, 황금종려상 수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봉 감독은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학에서 영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봐온 어마어마한 감독님들이 다 초청됐다. 저보다는 배우들의 수상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외부의 시선은 다양하다.

이미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들의 작품이 5편이나 경쟁부문에 진출한만큼 수상 가능성이 낫다는 견해가 있다. 전체 경쟁부문 진출작 25편 중 약 25%에 해당한다. '소리 위

미스트 유'의 켄 로치(83), '영 아메드'의 장 피에르 다르덴(67)·뤼크 다르덴(65) 형제, '어 히든 라이프'의 테렌스 펠리(76), '베르토프, 마이 러브: 인테르메조'의 압둘라피프 케시시(59),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56) 감독 등이다.

특히 영국의 거장 켄 로치와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는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거머쥐었다.

5명 외 후보들도 쟁쟁하다. '더 데드 돈트 다이'를 들고 칸을 찾은 짐 자무시(66)는 칸 영화제 황금가메라상·단편영화상·심사위원대상을 휩쓴 미국 독립영화계의 대부다.

'미티아스 & 맥심'의 캐나다 감독 그자비에 돌란(30)은 2009년 데뷔작부터 무려 6편이나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2016년에는 단지 세상의 끝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따냈다. 신작 '페인 & 글로리'를 공개하는 페드로 알모도바르(70) 감독 역시 '그

(민비키 가족)이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이 될만큼 이번에는 타 대륙으로 상이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018년 경쟁부문 21편 중 8편이 아시아 영화인 데 반해, 올해는 2편만 초청 받았다. '기생충' 외 다른 한 편은 디아오 이난(50) 감독이 연출한 '너와 야생'이다. 앞서 이난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생충'은 21일(현지시간) 상영됐다. 실제로 마지막까지 영화제에 관심을 모아두기 위해 칸 영화제 측은 기대작 후반부에 상영하는 경향이 있다.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데, '기생충'과 같은 날 공식상영했다.

한편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수상 예측으로 배팅을 하는 로터리 매체 'CALMOS'에서는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페인 & 글로리'가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봉 감독의 '기생충'은 3위다. 황금종려상을 포함한 경쟁부문 시상은 25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한다.

뉴시스

황금종려상 포함 경쟁부문, 25일 폐막식서 시상 예정 수상 경험 감독 다수·지나해 2위 감독 수상 등 여건 불리

녀에게 '나쁜 교육' 등으로 입지를 다진 세계적 감독이다.

지나해 아시아 감독의 수상 또한 불리한 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작년 칸 영화제에서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67) 감독의 '어느 가족

감독은 2014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백일영화'로 최고상인 금곰상을 수상했다.

물론 긍정적인 예상도 존재한다. 봉 감독의 '기생충'이 후반부에 배치된 것을 놓고 영화 관계자들은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